



지방공기업 파산으로 국가재정 부담 가중 전망

박정희 선임연구원

■ 2011년 제3섹터¹⁾와 지방 3공사²⁾ 등의 파산 건수는 전년대비 85.7% 증가한 26건으로 나타났으며, 이 같은 조사가 시작된 199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음.

- 기반시설 건설과 운영, 관광사업 등을 위해 설립된 지방 공기업들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하면서 지방 자치단체의 손실이 10조 엔이 넘는 것으로 파악됨.
 -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대출액은 총 4조 6,000억 엔에 달하며, 채무보증, 손실보상 등과 같은 사실상의 채권도 6조 엔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.
- 산업별로는 골프장이나 호텔 등 서비스업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, 부동산 6건, 운수업 4건 순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실적 부진으로 리조트 관련 시설의 파산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.
- 형태별로는 파산이 10건, 특별 청산이 9건으로 청산 유형의 소송이 19건으로 전체 파산 건수의 약 70%를 차지함.

■ 이에 일본 정부는 이러한 지방 공기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9년부터 2013년 말까지 손실처리 지원 목적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어서 또 다른 국가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.

- 이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지자체가 공기업 재정건전화나 파산 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목적임.
 - 따라서 '제3섹터 등 개혁 추진 채권'을 활용한 제3섹터 등의 정리·청산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.

(니혼게이자이 外, 7/23)

-
- 1) 제3섹터란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주식회사, 사단법인, 재단법인 등의 법인체로 주로 도로, 교량 등 인프라 건설과 운영, 관광사업, 복지사업 등을 영위함. 일본에는 이 같은 제3섹터가 현재 7,317개사가 있음.
 - 2) 지방3공이란 지자체들이 출자한 지방주택공급공사, 지방도로공사, 토지개발공사 등의 공기업으로 전국으로 1,084개사가 있음.